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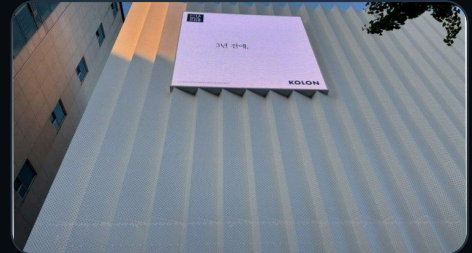
LED전광판

기술 가이드

2026-09-26 · (주)연우솔루션 작성 · 사진 9장

청사 앞은 심의 서류가 먼저다

구청 총무과 주무관이 청사 정문 옆 화단을 가리킨다. 여기에 가로 5m짜리 전광판을 세우고 싶다고 한다.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이미 올라가 있다.



청사 전광판 발주 전, 주무관이 묻는 세 가지

- Q 관공서가 세우면 허가 필요 없나?
A 적용 사례 여부는 관할 부서가 판단한다. 경로를 먼저 문서로 받아 둔다.
- Q 다른 청사 서류를 참고해도 되나?
A 개정 시행령과 현행 조례를 반영한 양식으로 새로 꾸린다.
- Q 허가는 한 번 받으면 끝인가?
A 표시 기간은 3년이다. 현상 상황과 전기 광고물 안전점검이 따라온다.

원문 수록 이미지 · 원문 전체 사진은 홈페이지 현장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01 심의는 화면 크기가 아니라 도면과 숫자로 통과한다
- 02 밤 9시의 밝기가 심의에서 가장 자주 걸린다
- 03 허가 기간까지 공정표에 넣어야 준공 날짜가 맞는다

본문 속 수치

160mm

P8 실외 모듈(320×160mm)을 가로 16장, 세로 16장 붙이면 화면은 5.12m×2.56m, 해상도...

450kg

캐비닛과 프레임을 합친 화면부만 450kg 안팎이다.

600~800W

실외 LED는 전체 흰색 최대 밝기에서 m²당 600~800W 수준을 쓴다.

5,000니트

그래서 실외 LED는 5,000니트 이상급 모듈을 쓴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 어디에도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라는 줄이 없다. 옥외 전광판 공사가 늦어지는 건 대개 장비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줄 때문이다.

청사 앞 전광판도 옥외광고물이다, 예산보다 허가 경로를 먼저 본다
옥외 LED전광판은 관공서가 세워도 옥외광고물이다.

전기를 쓰고 화면이 바뀌는 전광류 광고물은 시·군·구의 표시 허가 대상이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공공 목적인데 괜찮지 않나'다.

적용 디스플레이

옥외 LED 전광판 · DID·사이니지 모니터

구성 요소

CMS·스케줄 송출 · 원격 관제·제어 · 콘텐츠 제작 · 3D 모델링·설계 · LED 컨트롤러·송신카드

진행 단계

현장 실측 → 구성 제안·설계 → 제작·발주 → 설치·시공 → 시운전·인수 교육 → 운영·유지보수

관련 솔루션

LED 전광판 · 미디어파사드

LED 전광판 신설 · 교체

N2SF 전환 · 보안 DID

공공 청사 · 지자체

이 가이드로 상담

☎ 010-2700-2648 · ✉ osskoreaing@gmail.com

원문 · 사진 전체: screenmaru.co.kr/blog/224423117244.html



연우솔루션
YEONWOO SOLUTION

기술 가이드 117244